

# 올해 전남지역 공보의 411명 배치 '역대 최저'

### 전년비 65명 ↓ ...외과 51명·한의 15명 감소 도, 보건기관 운영 개편·인력 다각화 총력

농어촌·섬 등 의료취약지 최전선에서 1차 의료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직(공보)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배치되면서 전남 필수의료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신규 공보의 173명 등 총 411명을 도내 보건소, 지방의료원, 병원선 등에 분산 배치했다.

올해 공보의 배치 인원은 지난해 대비 65명 감소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외과 51명, 한의과 15명이 각각 감소한 반면, 치과는 1명 늘었다.

이번에 배치된 공보의는 보건소·보건지소 238개소, 지방의료원 3개소, 취약지 병원 응급실 17개소, 병원선 2척 등 총 274개소에서 근무한다.

공보의는 현역 사병과의 복무기간 차이와 여성 의대생 비율 증가, 최근 의료계 환경 변화에 따른 의대생 군 휴학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역 1차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기관 운영체계 개편과 인력 활용 다각화 등 대응책을 추진한다.

우선 공보의는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보건기관에 우선 배치하고 미배치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외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66곳에는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외과 진료를 상시 제공하고 한의과·치과 진료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또한 139개 보건지소는 보건소 공보의를 활용한 순회진료를 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있는 12곳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해 주민 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시·군 간담회와 컨설팅을 4차례 진행했다. 공보의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상호 보완하는 진료체계를 구축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해 총 17억원을

투입, 전문의 24명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주거·연수·연구 지원을 제공해 장기 근무를 유도한다.

또 비대면 진료와 원격 협진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산 교육을 하고 시니어 의사 등 관리의사 채용도 지역 의사회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지역 의료 공백 방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취약지도민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서원 기자



청각 장애 간접 체험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주간행사가 열린 15일 오후 광주 동구청 1층 로비에서 시민들이 입 모양을 보고 단어를 맞추는 청각 장애인 간접 체험을 하고 있다. 장애인의 날(4월20일)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조영권 기자

## 민주 화순·장성군수 경선 중단...대리투표 의혹

### 여론조사 ARS 대리투표 제보 잇따라 중앙당 징계·투표 무효 결정 가능성도

화순군·장성군 등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이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지며 잇따라 중단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남부터 이날까지 결선 투표가 이뤄지고 있던 화순군수 후보 경선 과정을 긴급 중단했다.

전남 화순군 한천면에서 특정인이 주민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걸어 민주당 경선 자동응답(ARS) 투표를 대리해줬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증거로 관련 동영상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당은 경선을 중단하고 결선 후보인 윤영민·임지락 예비후보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도당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나 투표 무효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전남에는 장성군수 후보 경선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돼 결선 투표가 무효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 의를 열어 장성군수 경선을 중단하고 윤리감찰

단 긴급 감찰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장성군 삼계면 한 경로당에서 일부 주민이 여러 명 이웃의 휴대전화로 대리 투표를 하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경로당 내부에는 휴대전화 10여대가 각각 주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과 함께 정리돼 있었고, 경로당에 머물던 주민이 각 휴대전화 주인을 대신해 응답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성군수 후보 경선 결선에는 김한중·박노원·소영호(가나다순) 예비후보 등 3명이 진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과 선거위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재정 기자

## 김영록, 통합특별시장 경선 패배 승복

### "민형배 의원 성공 두 손 모아 기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에서 탈락한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가 15일 "민형배 국회의원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통합의 이유는 무엇보다 낙후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함이었지만 부족했다"며 "시·도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모든 것은 저의 미흡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를 도와 함께해준 신정훈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이병훈 호남특위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지지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며 "전남지사로 복귀해 두 달여 간 통합의 부자용과 30만 시·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어려움에 처한 서민 경제를

살리고 산업화를 이루지 못한 전남·광주가 미래 첨단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 청년이 돌아오고 인구 400만명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민주당 후보가 된 민형배 국회의원이 성공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경선 결과에 승복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통합은 전남과 광주가 발전해 다른 지역과 대등하게, 아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이기 때문"이라며 "필요하다면 저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전남지사를 마치면 평범한 특별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제가 평생 희망했던 전라도, 호남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언제나 일상을 함께 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정 기자

## 최옥수·나광국 무안군수 예비후보 단일화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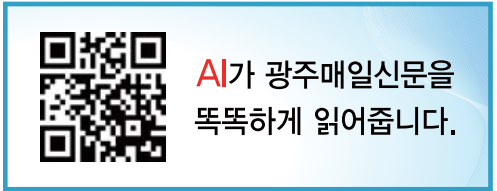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경선 후보인 최옥수·나광국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다.

최옥수·나광국 예비후보는 15일 오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선 탈락 후보는(결선에 진출한 후보의) 지지 의사를 공식 발표하며 선거운동 및 조직을 단일 후보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지난 8년간 무안군정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소중한 기회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리더십에 결코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했다"고 단일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번 단일화는 단순한 후보 간 연합이 아니다"며 "김산 군수의 3선을 저지하고 무안의 대변화와 균형 대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옥수·나광국 예비후보의 단일화 선언 기자회견에는 앞서 실시된 경선에서 탈락한 류준우 예비후보도 함께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급히 찾습니다]**

- 빌딩: 현금200억/병원용도/  
--조건 건평2,000평/주차100대내외
- 빌딩: 30억~50억/7명대기중  
--조건 인구밀집지역/월세수익용
- 현금25억/개인병원개설/대단지아파트주변  
--승강기,주차5대/10년이내건물

이밖에도 중소형 상가건물/리모델링용 상가/  
창고/담양,장성/화순지역 계획관리  
2,000평~7,000평까지 매물찾으려고  
현장 누비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교환시대:상가,주택,토지,아파트 등등

###연락주세요/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 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  
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  
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  
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  
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